

★ 매금요
一九五八年三月十四일
제一〇〇六十九호

The Korean Pacific Weekly

"Established, Sept. 1913"

Entered as 2nd class mail matter,
14 July, 1944 at the Post Office
at Honolulu, Hawaii, U.S.A., under
the Act of 3 March, 1897.
Honolulu, Hawaii
Add: 931 N. King St.



안 익 태 씨

비인도적인 쳐사
「길촌이」^{1) 4)} 얼
구운에다 「콜콜타는 처心境을 하
여리컬럼보 부평에서
제우에다 운반 유기한
년 미로자인가를 수사주
의를 하여다
이일 누부부자장관 머어
기류운은 전론도 사오승법
라고 지적 고의한 사설
이느데 처안국 수사 대
국지가 맘달여에 대여
미 제8군단국에 서 말당
바와같이 기류운이 전로도사
습법이라는 사설로 「군
업는 말이하고 하면서
만사거 대안이 기류운이
니에서 「하야이」⁵⁾ 와 태
상시계 「기를 전원회
지고 나오다가 져운문 보초에
제 밟았된 사설이 있으
고 말한다.
하고 동국자 말에
하며 나아린 소님을 미
장 유기한다는 거슨 비단
드는이 처사하고 적적 차
면서 적자면은ong 사자적의
모자도 악례저이스는 「토마
트제재4) 「소리」⁶⁾ 과
「마린 흐」⁷⁾ 「기」⁸⁾ 「3-6」 대위
그리고 「로마로 푸와이드조수도
「4) 사자를 의뢰 첫날
최달라고 가정하여 우주
여서다한국

HAWN.
NEWSPAPER
BLOCKS

이와 가희 회답을 가자
는 스령의 육우는 고산당
의 세계 젠인을 이들의 주요
부분이 거시다 이와 같았던
회답은 우리에게 아무것
도 주는 거시다 이들 험난히
오히려 커다란 순수를 가
져온 거시이다

「리」 대동령이 이 「시마」에
「페루구이」 터도를 지지
사방에 국보지로 이를 통행하고
서성명으로 이에 박제하고 「대한」
미국과 같은 자와 세계를 공
산 치략의 위험하고
사방으로 유도 하려는 고양
다이의 기도에 대하여 경계경
한 이자와를 취하고 이는
이자와를 취하고 푸드는
데르레스 써의 터도를 저쪽
적으로 지지하니 고 선하
한양과 리동우를 뛰어는 이날
서성명에서 「데르레스」 자와
국의 부는 대외적인 「에비」
여로 되기를 향한 한나을이
어 다이의 가로 밭하였다
미국인 자신의 안전분
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반
한국으로 하여 소련과는
는 그 위성국가들의 통일
상공화국은 선은 기록에 한
회자마다 이들 철도 철도

하고 이는 저마다
고자하는 그들의 목적
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
지 않고 이는 것이다 그들
은 허위성과 기마화 각
종의 간계를 자행하고 이는
거시이다 그들이 우리를
화하고 한나라를 견디게 하여
고이산성의 목표 기마장을
폐허 나가야 만 이와 가동은
국제적 농간에 중장지부
로 서지기 이는 것이다
「델레스」 장관은 윤을
성가을 가진 것이다 주고

[동경] —[서부]—[일본] I
NS=한국도 대한 민국
대통령이 리스만 박사느니
시비[이] 최신 남한주둔
운에 군에게 암자 한두
를 사용한듯이 이는 무기
가 고이드 레이트로 써 고이사나우
의 자동화의 선호한 체계[가] 계
획이 좌절되었고 말하
여다
리대통령이 미국의 이전
처가 주교으로 하여금 북
한을 후퇴 군대를 철수한
제스하고 성명에 학제 쓸
들어온다고 말하였다 리
대

전의식 침략계획 좌절
위자부기 도미움으로
한국침략이 되었고
잘 못 세 단이 드는
나자는 경인 거시다
한 척락도 일로 애드사
진자 거부하다는 거시이다 이
나자는 고장과는 거시이다
한국은 「밀레스」 자와의
외교정책의 이전 부분에
대하여 서로 의문을 가지게 된
이이다 그러나 무언 보다도
주중화 문제는 대교를 나란
이며 자유세계의 모든 나라
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일치
단결해 나가는거시 절
대 표로한 거시다
우리는 고장의 척락
에 대하고 하는데 이성서의
「밀레스」 자와의 입장
을 지지하는 바이며 자유세
계의 모든 우리인민이 이를
지지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나에게 몇 줄의 글을 갖추기 전에
두를 사용한 바입니다. 이는 무
기로운 보너트로써 그들의 흥
계를 저절로 살펴냅니다.
리대통령이, 주고이가 「아
마도 한국전쟁에 기여한 거지
부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세상이 시작. 한거는 각별한
고 말하면서 만일 그들을
처벌은 악수이니 서로 천국에
머물고는 우리가 거대하게
한국에 보여주면서 고산 주
의자(主椅子) 첨략의 도리를 청
회하고 말거시라는 거슬름
하루에 일정한 준단 고

국민의 미주 주수의 한 사람인
국 국경의 안전이 보장되는
된다는 조건 하에서 우편을
근둔 청할 거시라고 말
하였다.
리대통령이 표지에 양복을
기의 나에게 사전에 「주재국
의 토론에 참여하여 일정에
관심이 있다」고는 성가지
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
러나 나는 고지장과의자들을
이 「인호운에 우편에 서면
이 강도 히위에 코나 놓을
것을 바쁜 세계에 대

여보를 거시며 「四시한」
는 그 이상의 군대에게 서
나한장을 고이 헤 주기로 두
여다 한 것이라 라고 말하
리대통령이 주고이 미
국과 기타 서방국가 대표를
「우지전서 속기 자랑한」
나라도로 보고하고 경고하고
이야 밖에화가 빙고 봄을 다
【마침내 주고이 환경 청수를
나 애, 그들이 그들의 속
이로에 「나가가 나마한」 으로
부려 알수 할 것이라는
사운데 이가자고는
나는 미국 미술 기관
우리의 미술이 다니는 속
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한다】

【외국인 세계】 미국부서에의 「국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 유 선거를 실시 하리라 는 등의 외화정책 발표 한 바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군대 철수를 이행하는 데에 유익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성직자 한단과 박한영여사부
여전기와 사리
노출되느니라

이순는 백화점주를 상당다이리
강우한마 이수미에 헌정로에
서 헌정로에 강우하는 문예전시회
는 고려되고 이지 악하고 지
적 하여다

하고 이는 주고받아야 하는
한국 이스라엘·예루살렘과
비단지·수비의 우세를 제로
하고 이스라고 지정하였다.
신한국부서성·신영이 암
[만화·주제]로 전할 수가 많음
과 가들이 이같은 되나마 이는
는 환경으로 거시며 일반인
천수수가 외로 펴나마' 우리
등 고이·등 고이·등 등에 나
아직은 미주주의적 한국
의 문화학자
[에노우의 전통문화]
[제작한 바 이는 조처에
동의하게 되기를 희망
게 되었거나]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하와이 대한인 부인 구제 회
네그레 대표회 제二차
속회

<p>하우七세에 호^하한 대한이 기독교 사교신에서 대의 장자 정연우국내사 사회에 국가에 —— 저울을 힘입어 후 주동아리장 양성인기 녀의 거도로 제二차 대표 회 속회를 개최하고 서기로 제보자 존안하다 대표위는 의장이 서기로 저우회임기 를 끝으로 한후 오작 유 부를 문하니 무학으로 가로 져서 주안하다 대표위는 부인 구제회의 부 금은 전과가 드리 三元 으로 한사 회장과 주보사의 광 고국도 전과가 드리 三 十元식 지금 하기로 한사 一월이 이르울 수 한달에 중간에 우루 란방에 한사 구제물품을 모집 하여 한사에 보너 대로 대한에 보너 이는 출장을 구호 회사업 금을 드는 구제 회사업 비자에 더욱 노력 하게 한사가 최대 하예간 부인 구제회 돈 7천원을 작년에 </p>	<p>— 一九五八年 二月 — 一 하우七세에 호^하한 대한이 기독교 사교신에서 대의 장자 정연우국내사 사회에 국가에 —— 저울을 힘입어 후 주동아리장 양성인기 녀의 거도로 제二차 대표 회 속회를 개최하고 서기로 제보자 존안하다 대표위는 의장이 서기로 저우회임기 를 끝으로 한후 오작 유 부를 문하니 무학으로 가로 져서 주안하다 대표위는 부인 구제회의 부 금은 전과가 드리 三元 으로 한사 회장과 주보사의 광 고국도 전과가 드리 三 十元식 지금 하기로 한사 一월이 이르울 수 한달에 중간에 우루 란방에 한사 구제물품을 모집 하여 한사에 보너 대로 대한에 보너 이는 출장을 구호 회사업 금을 드는 구제 회사업 비자에 더욱 노력 하게 한사가 최대 하예간 부인 구제회 돈 7천원을 작년에 </p>
---	--

교회 모임

호학 한인 기독교회
一九五八年三月十六日
청년부 이회 주일
예의와 한에서고 제록
『사랑의 서복』
서교자 김경연 목사
◆ 호학 교회 소식
○ 인도네시아에 비는 다
음과가 있는 친이사가 이사하고
합니다
아직은 빙는 청년부 이
회장은 빙이 주교
예비 목후에는 사부 신임에
서 월드盯자회
여러 분에 대해서는 소리 청
년 오차
하오 + 시바에는 주일학
교선성 양성서교
하오 + 시바에는 애동회에
참석하고 합니다
하오 + 시바에는 저녁 기
도회
◆ 세례청워 서 용지는지
난 주 이루루 불여하는데
기거나 저기 된 보도 물망을
기인한 후에는 교회 삽
설에 입찰 30일 저여
가정이나 우편으로 보내
답하고 합니다
비
하오 + 시바에는 저녁 기
도회
◆ 목사사제 건축에
하라고 빅선업에 유통
로총인 이라니 빅거리를
하였는단은 지침을 균
축비의 충당하고 가 토처에
원이라고 합니다
◆ 대식당이 (제6)
주소변경 제속 박
리 톨린 이사 고 바우 거문세
의 부이)는 키나우 거리를
여기서는 키나우 거리를
하여스며 과거 며수원도(안)

본 자정의식에 설비는 가장 아름다운데 레일 오전 9시로 오후 4시간에 언제나 경기 하루 이스습니다.
가족에서 전자 쇼핑과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은 최신 기술로 교통과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을 통해 종교적 울 철물이 예술과 삶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려한 도시재생을 향해
서울시는 화려한 도시재생을 향해
화장리, 또는 그 보광동도 구비한의에 보행에서도 풀밭과
용의하고자 전화 539-007을 부탁하면서 언제든지 연락하고 하루
이스습니다.
수주 우리 미장지 위치를 찾으시다면 누아누 거리 11
1111호로 오시십시오.



전방전화
501976
전주조필립
사회전화는
전화번호

한 일의 상가로는 한 두 해가 있

본
장의소에 설비는
가장 아름다운데
이일 오전 九시
로 오후 四
시간에 언니나경 허주 이십니다
가족에서 자살로
죽은 데는 고신에서
세례도 차운지
시작이었고
자아로 남김에
여식금에서
걸식을
처음인 영어로 부를가 참고하

가주에서 사업하는 차임
아이... 며느리전에 보통 학생이
아는지... 며느리에게 말씀해
자족은 알리임. 서예
이거 하여스며 미길먼여서
의 가족은 와이기 구여
에 선정을 지고 하. 단정
에 가수며 자과목 써는 히원
노세 야옹원에서 평야한
제 드는 기생제 지니신다
고 합니다.(미와)

와하아와 한인 거두교회
주무인 아치 예비
一九五一三月十六日
서교자 권희상 목사
여인과 함께 서교제목
처방을 와성케 하는 사
랑.”

서교부록 마더 토창
三月二四日

교회소식

부·장교부·부이보조회의회
조로서 오는 추월 일(十六일)
오후 一시 반부터 교회 주
이인회 교사로 교서로 시작
할 유아영어학부 교사로 등
수기위한 학부 수료 등
자발적인 교활을 위한 노
동이 이수되리라 하다

—「교우 중 기밀이 있는 써
니의문 번역으로서 니의문 리
명선서 명선서의문에 서는 각
각 수준을 보석하고 하다

— 「금년도 부활주일
에 유아 세례를 발기기 위하
는 부모는 교회 사무실에서
워서를 자전자가 三월 二
十六일 저녁에 기이란에
기입하여 등록해보니 주기
란다고 하다.

— 「교우 중 청연인 신
업가 최혁서씨는 와이아와
에다 설 「수페-막케스」
(시글 품시자) 을 섞이기
위한 서면 통을 기고 이식을

◆ **구아누 지방 동지역**
설립여our 주년 기념
— 一九五八년 **국·영** 초대 이
은 **나우주지방 동지회**를
설립하였다. 제4주년회는
설립회원제 25주년회를 맞이
기념사업으로 알하로나구아누
남시[郡]에 알하로나구아누와
제 25주년회 고위원 사무실
이스는 군정에서 거행하였다.
제 25주년회 고위원 사무실
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다.
서울·나우주 지방 동지회
회에서 무를 대하고나우주
나우주에서 만히 와
동포에서 대하고나우주에서
고한국 고한국
◆ **지난 3월 22일에 담
이북사 기도에서 착수 차
에 독립한 한이 이제 천
년 시름이나의 거두고 저
시화에 헤어나지는 그로
적 신앙 성화를 끼워
처우승하여 그 애교의 문
축보임을 비례하지 안드
고한국
0000**